Symphony No. 5 in B♭ major, Op. 100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5 in B♭ major, Op. 100
작곡가: Sergei Prokofiev (1891–1953)
작곡: 1944년; 8월 22일 피아노 단축보를 마치고 11월 29일 관현악화를 완료
초연: 1945년 1월 13일, 모스크바 음악원 대강당; Sergei Prokofiev 지휘, USSR State Symphony Orchestra
구성: 4악장
조성: B♭장조
작품 번호: Op. 100
악곡 소요 시간: 약 43–46분

IMSLP: Symphony No.5, Op.100 (Prokofiev, Sergey)

Wikipedia: Symphony No. 5 (Prokofiev)

Sergei Prokofiev의 Symphony No. 5 in B♭ major, Op. 100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소련 영토에서 끝을
향하던 1944년에 완성되었다 . 느린 제 1악장과 빠른 제 2악장, 다시 느린 제 3악장과 빠른 피날레가 이어지는
네 악장 교향곡이다 . 기본 배열은 고전적이지만 , 음악은 한 가지 정서에 머물지 않는다. 넓게 펼쳐지는 선율은 행진의 압력과 충돌하고, 명랑한 움직임은 기계적인 반복으로 변하며, 대편성의 절정은 실내악처럼 앙상블이 해체되는 순간과 맞닿는다.

Prokofiev는 작품을 ‘인간 정신의 승리 ’와 연결했고, 한 창작기를 마무리하는 교향곡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전쟁 종결기의 초연 상황 때문에 제 5번은 오랫동안 승리의 기념비처럼 받아들여졌다 . 그러나 작곡가는
악장마다 전쟁의 사건을 대응시킨 표제를 남기지 않았다. 피날레의 환희도 곧바로 안정된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이 작품의 힘은 영웅성과 불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고, 두 성격이 같은 주제와 음향 안에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과정을 듣는 데 있다.

이바노보의 집중 작업과 오래된 스케치

Prokofiev는 1944년 여름 모스크바 북동쪽 이바노보에 마련된 작곡가 휴양소에서 교향곡의 기본 골격을 썼다 . 전시의 식량난과 공습에서 잠시 떨어진 이곳에는 Dmitri Shostakovich, Aram Khachaturian을 비롯한 여러 작곡가가 머물렀다. Prokofiev는 약 한 달 동안 피아노 단축보를 집중적으로 완성한 뒤 모스크바로 돌아가 관현악화를 계속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이 소개한 작업 원고에는 단축보 말미에 1944년 8월 22일, 마지막
보충 부분 뒤에 관현악화 완료일인 11월 29일이 적혀 있다. 따라서 ‘한 달 만에 완성한 교향곡 ’이라는
통용되는 설명은 피아노 단축보를 집중적으로 작성한 기간을 가리키며, 완성 총보까지 한 달 안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작업이 짧았다고 해서 모든 재료가 그해 여름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다. 스케치 가운데 일부는 193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Prokofiev는 오래 보관한 착상들을 한 작품 안에 배치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선율이 하나의 교향적 흐름을 이루도록 다듬었다. 제 3번과 제 4번 교향곡이 각각 오페라 The Fiery Angel과 발레 The Prodigal Son의 재료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과 달리, 제 5번은 처음부터 독립된 교향곡으로
구상되었다 . 1930년의 제 4번 이후 14년 만에 번호가 붙은 새 교향곡이었으며 , 무대작품에서 파생하지 않은 교향곡으로는 1925년 제 2번 이후 처음이었다 .

초연의 포성과 빠른 확산

세계 초연은 1945년 1월 13일 모스크바 음악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USSR State Symphony Orchestra를 Prokofiev 자신이 지휘했으며 , 이 공연은 결과적으로 그가 지휘봉을 든 마지막 공개 연주가 되었다.
피아니스트 Sviatoslav Richter의 후대 회고에 따르면, 작곡가가 첫 박을 내리려던 순간 바깥에서 포성이 울렸고 그는 소리가 멎기를 기다린 뒤 연주를 시작했다. 이 장면은 전쟁과 교향곡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지만, 포성의 정확한 군사적 의미에 관한 설명은 후대 자료마다 다르다. 작품의 표제를 입증하는 동시대 문서가 아니라 목격자가 훗날 남긴 기억으로 다루어야 한다.

초연 뒤 작품은 빠르게 퍼졌다. Yevgeny Mravinsky가 지휘한 레닌그라드 초연은 1945년 6월 24일에 열렸고 , 같은 해 파리에서도 연주되었다 . Serge Koussevitzky와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11월 9일 Boston Symphony Hall에서 미국 초연을 맡고 닷새 뒤 Carnegie Hall에서 뉴욕 초연을 했다. 미국 초연 직후의 비평은 작품의 규모와 관현악 기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모든 부분이 똑같이 응집되어 있는지에는
유보를 보였다. 레닌그라드의 Mikhail Druskin도 장대한 낙관성을 환영하는 한편 피날레의 목가적인 삽화가 너무 짧아 주변 음악에 압도된다고 지적했다. 초기 수용부터 영웅적인 외관과 불안정한 내부 사이의 긴장이 감지된 셈이다.

제 5번은 1946년 1급 Stalin Prize를 받았다. Prokofiev가 소련 방송을 위해 쓴 설명은 ‘인간 정신의 승리 ’를 작품의 기본 사상으로 제시했지만 , 미국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 같은 것이라고 훨씬 느슨하게 답했다. 공식 문구는 당시의 공적 언어와 분리하기 어렵고, 사적인 답변은 음악에 고정된
줄거리를 붙이는 데 작곡가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두 발언을 함께 놓으면 이 작품을 승전의
선전물로 단순화하거나 , 반대로 모든 밝은 몸짓을 강요된 가면이라고 단정하는 해석을 피할 수 있다.

원고와 출판 정보

작품의 원고는 한 점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러시아국립도서관 소장 자료는 연필로 쓴 피아노 단축보에
관현악기 배치를 촘촘히 표시한 작업 원고다. 별도 크기의 종이에 완전한 관현악 총보로 적은 ‘보충 ’ 부분들이
본문 사이에 제본되어 있어서, Prokofiev가 단축보를 관현악으로 옮기면서 일부 구간을 다시 확장한 과정을
보여 준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기록에 따르면 Koussevitzky가 소련 작곡가동맹에 보낸
보스턴산 오선지에 적힌 별도의 원고 총보는 현재 Boston Public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이 자료가 자필 정서 총보인지 사보자의 필사본인지까지 확정하기 어렵다. RGALI에 남은 1946 년 문서는 제 5번과 Waltzes, Op. 110에 관해 사보자에게 보낸 한 장의 지시 초고이므로 , 작품의 총보
자체와도 구분해야 한다.

인쇄 총보의 초판 연도는 기관 서지에서 엇갈린다. IMSLP는 Moscow의 Muzgiz 판을 1946년, 207쪽으로
적고 Harold Sheldon을 편집자로 기재한다. 반면 Morgan Library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는 모스크바 국립음악출판사 총보를 1947년으로 기록하며, Morgan은 이를 초판이라고 명시한다. 실물의

표제지와 판권면을 함께 대조하기 전에는 1946년 또는 1947년 가운데 하나를 무조건적인 정답으로 삼기 어렵다. 1948년에는 Sheldon의 주석을 포함한 Leeds Music 판이 New York에서 나왔다.

1963년 Moscow의 Muzgiz가 낸 Prokofiev 작품전집 제 14B권에는 Sergei Pavchinsky가 편집한 총보가 수록되었고, 이 판은 뒤에 Belwin Mills와 C. F. Peters를 통해 재출판되었다. 그러나 공개 서지만으로는 편집 원칙과 원전 대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현대 비평판이나 우르텍스트라고 부를 근거는 없다. 현재 공연 자료는 지역에 따라 VAAP와 Boosey & Hawkes·Sikorski의 권리 및 대여 체계를 따른다.

Boosey & Hawkes와 Sikorski의 *Prokofieff New Editions*에는 BH 15228이라는 새 연구용 총보가 예고되어 있다. 출판사는 이를 새로 전산 조판한 '교정 신판'으로 소개하며 ISMN 979-0-060-15228-3, 160쪽이라는 서지를 공개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상품 페이지에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고 예약 주문도 할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 편집자와 대조 원전, 비평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공연의 표준 신비평판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소요 시간

Boosey & Hawkes의 작품 목록은 약 43분을 제시하고,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46분으로 안내한다. 실제 현대 녹음에서도 Marin Alsop과 São Paulo Symphony Orchestra는 44분 47초, Gianandrea Noseda와 London Symphony Orchestra는 44분 2초를 기록했다. 따라서 전곡은 대체로 43–46분이며, 악장별로는 제 1악장 약 13–14분, 제 2악장 약 9분, 제 3악장 약 12분, 제 4악장 약 10분으로 잡을 수 있다. 40분 안팎의 빠른 연주와 45분을 넘는 넓은 연주도 있으나, 통상적인 컷보다는 템포와 프레이징의 차이에서 생기는 편차다.

편성

악기군	편성
목관	플루트 2, 피콜로,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B♭ 클라리넷 2, E♭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트라이앵글, 우드블록, 탬버린, 스네어드럼, 베이스드럼, 심벌즈, 탐탐
기타	하프, 피아노, 현악 합주

공식 축약표에서 목관의 숫자는 겸주자를 제외한 악기 수가 아니라 각 파트의 전체 규모를 나타낸다. 실제로는 피콜로를 포함한 플루트군 3명, 잉글리시 호른을 포함한 오보에군 3명, E♭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을 포함한 클라리넷군 4명, 콘트라바순을 포함한 바순군 3명이다. 이 확장 목관은 단순히 소리를 두껍게 하지 않는다. 낮은 클라리넷과 바순은 무거운 행진의 바닥을 만들고, 피콜로와 E♭ 클라리넷은 스케르초와 피날레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드러낸다. 피아노와 우드블록, 스네어드럼은 선율을 받치는 화음 악기라기보다 음악이 기계처럼 작동하는 순간을 선명하게 표시한다.

네 악장의 전체 설계

`Andante`, `Allegro marcato`, `Adagio`, `Allegro giocoso` .

, 1 . 2 . 3 .

. . . .

시작을 그대로 반복하는 재현이 아니다. 격렬한 중심부를 통과한 선율은 더 멀고 고립된 것처럼 들리며, 종결의 고요도 완전한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 악장을 비극의 표제음악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품의 공적인 영웅주의가 가장 심하게 시험받는 장소임은 분명하다.

IV. Allegro giocoso

피날레는 곧바로 빠르게 시작하지 않는다. 첼로가 여러 성부로 나뉜 조용한 서주에서 제 1악장의 선율을 회상하고, 다른 악기들이 지나간 악장의 흔적을 짧게 비춘다. 이 회상은 마지막 악장이 앞의 세 악장을 지우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겪은 음악을 다시 불러낸 뒤 결론을 찾는 과정임을 알린다.

Allegro giocoso 에 들어서면 클라리넷이 민첩한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음악은 되풀이되는 주제 사이에 대조적인 삽화를 끼우고, 그 재료를 소나타처럼 발전시킨다 . 분석가들이 느슨한 론도와 소나타
론도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다. 선율은 처음에 명랑하고 재치 있게 움직이지만 , 반복될수록 리듬의 모서리가 날카로워지고 피아노와 타악기가 기계적인 성격을 강화한다.

종결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음량의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편성의 해체다. 대편성이 물러나고 독주 현악, 피아노, 하프와 타악기가 작은 자동 장치처럼 맞물린다. 음악은 잠시 멈추기 직전까지 잘게 분해되었다가
전합주의 짧고 거센 종지로 끝난다. 이 결말은 환희가 절정에 이른 순간으로도 , 환희가 자기 통제를 잃은
순간으로도 들릴 수 있다. 어느 한쪽을 숨은 정답으로 확정하기보다 , 밝은 조성과 giocoso 라는 표정 안에 불확실성을 남기는 악보의 방식 자체가 해석의 출발점이다 .

전쟁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넘어

제 5번은 1944년이라는 날짜, 초연 직전의 포성, 작곡가의 ‘인간 정신의 승리 ’라는 설명을 지울 수 없는 작품이다. 동시에 전쟁을 직접 묘사하는 제목이나 악장별 줄거리가 없고, 주요 재료 가운데 일부는 전쟁 이전의 스케치에서 왔다. Paavo Järvi가 이 작품을 단순한 전쟁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데 반대한 것도 이런 복합성 때문이다. 무대음악에서 익힌 춤과 몸짓, 고전적인 형식 감각, 전시의 공적 언어가 한 작품 안에 함께 들어 있다

.

연주에서는 이 복합성이 속도와 음향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제 1악장을 넓게 쌓으면 기념비적인 규모와 중량이 선명해지고 , 빠르게 밀면 주제 사이의 연결과 긴장된 전진이 두드러진다 . 제 3악장을 오래 호흡하면 서정과 절정의 간극이 커지며, 짧고 냉정하게 통과하면 반복 리듬의 불안이 앞선다. 피날레도 승리의 광채를 전면에 놓을 수 있지만, 대편성이 소편성으로 흩어지는 종결 직전의 균형을 세밀하게 들려주면 불확실성이 더 오래 남는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연주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작품을 하나의 시대적 표어보다 넓게 만든다

.

주요 녹음

Serge Koussevitzky / Boston Symphony Orchestra (1946, RCA Victor)

미국 초연을 맡은 지휘자와 악단이 이듬해 남긴 작품의 최초 녹음이다. Prokofiev와 직접 연락하며 미국
초연을 준비한 Koussevitzky의 해석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역사적 자료다. 약 40분의

빠른 흐름과 날렵한 운동성은 뒤의 기념비적 연주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78회전 음반 시대의 모노 녹음이라 주파수와 다이내믹에는 제약이 있지만, 작품이 초연 직후 어떻게 호흡했는지를 전하는 기준점이다 .

Herbert von Karajan / Berliner Philharmoniker (1968, Deutsche Grammophon)

넓은 호흡과 포화된 현악, 깊은 저음과 탐탐을 결합한 대표적인 기념비 해석이다. 제 1악장의 긴 곡선을 큰 절정으로 모으고 제 3악장의 중량을 충분히 키우며, 네 악장을 하나의 거대한 음향 건축물처럼 들려준다. BBC Radio 3의 Building a Library는 2012년 비교 감상에서 이 녹음을 최종 추천으로 골랐다.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매끈하게 통합하는 까닭에 목관과 타악기의 거친 대비는 덜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품의 장대한 면모를 듣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

George Szell / Cleveland Orchestra (1959, Epic/Columbia)

약 39분에 이르는 압축된 해석으로, 정교한 앙상블과 마른 리듬을 전면에 놓는다. 느린 악장에서도 감상적인 여유를 넓히기보다 동기의 진행과 구조적 긴장을 유지한다. Karajan의 넓고 포화된 음향과 나란히 들으면 같은 악보가 얼마나 다른 비례를 허용하는지 분명해진다 . 특히 제 2악장의 목관과 현악, 타악기가 서로의
윤곽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빠른 장치처럼 맞물린다.

Vladimir Jurowski / Russian National Orchestra (2007, Pentatone)

투명한 현대 녹음 안에서 목관과 트럼펫, 피아노와 우드블록의 산성적인 색채를 세밀하게 분리한다. 음향을 억지로 거칠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풍자적인 악센트와 불안한 리듬을 숨기지 않는 해석이다. 역사적 녹음의 제약 없이 내부 성부와 타악기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감상자에게 알맞으며, 넓은 기념비성과 빠른 추진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Gianandrea Noseda / London Symphony Orchestra (2022, LSO Live)

2022년 4월 10일 Barbican Hall 실황을 2023년에 발매한 녹음이다. 전곡 44분 2초로 출판사들이 제시한 연주 시간 범위에 들며, 영웅적인 광채와 피날레의 불안한 운동성을 함께 살린다. BBC Music Magazine을 비롯한 최근 비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편성으로 갈라지는 종결부와 전합주의 귀환이 현대 녹음의 넓은 다이내믹 안에서 선명하게 대비되어, 작품의 두 성격을 함께 확인하기 좋은 최근 연주다.

주요 자료

작품ㆍ작곡ㆍ초연

Boosey & Hawkes: 작품 페이지

Boosey & Hawkesㆍ Sikorski: Prokofiev 작품 목록

- Boston Symphony Orchestra: □□ □□
- Boston Symphony Orchestra Archives: 1945□ □□ □□
- Los Angeles Philharmonic: □□ □□
- Houston Symphony: □□□ □□□ □□
- Russian National Library: □ 5□□□ □□ □□
- St Petersburg Philharmonia: 1945□ □□□□□ □□
- St Petersburg Philharmonia: Mikhail Druskin□ 1945□ □□

□□□□□□□

- IMSLP: □□ □□□ □□ □□
- Morgan Library: □□□□ □□ □□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rokofiev □□□ □□
- RGALI: 1946□ □□□ □□ □□
- Schott Music: BH 15228 □□ □□ □□

□□□□□□□

- Sun Valley Music Festival: Jon Kochavi□ □□□□ □□
-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2024□ □□ □□□□
- Tonhalle-Orchester Zürich: Paavo Järvi □□□□ □□
- BBC Radio 3: *Building a Library* 2011–12 □□
- Boston Symphony Orchestra□ Sony Classical: Koussevitzky □□□ □□
- Presto Music: George Szell□ Cleveland Orchestra
- Deutsche Grammophon: Herbert von Karajan□ Berliner Philharmoniker
- Pentatone: Vladimir Jurowski□ Russian National Orchestra
- LSO Live□ Chandos: Gianandrea Noseda□ London Symphony Orchestra